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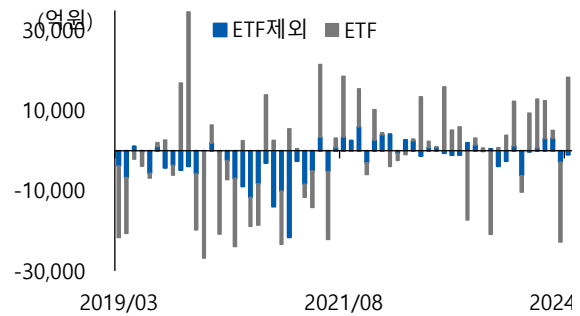


신흥국의 세대교체

1. 2024년 국내주식펀드는 순유입으로 출발

- 1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상밖으로 약세를 이어가면서, 주식펀드로는 저가 매수 크게 증가
- 자금 유입 상위펀드는 대표지수 관련 ETF와 레버리지 ETF 등. 테마 펀드 중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ETF로 자금 유입.
- 해외주식ETF는 2달 연속 순유입을 이어갔으며, 미국과 일본·인도 펀드로 자금 유입.

국내주식펀드는 1월 순유입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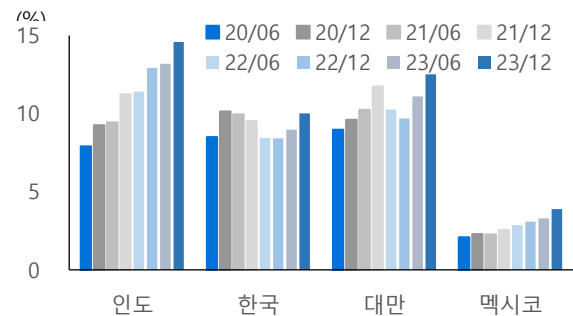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중국에서 인도·대만·멕시코로

- 중국 부동산 부실과 부진한 내수 경기, 미중 갈등 등으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음.
- 신흥국주식 펀드 안에서 29%까지 늘어났던 중국 비중은 2023년말 20%까지 줄어들었음.
- 중국의 자리는 인도, 대만, 멕시코 등이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투자 비중도 작년 하반기 증가.

신흥국 펀드 안에서 인도, 대만, 멕시코의 비중은 계속 높아짐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 2024년 국내주식펀드는 순유입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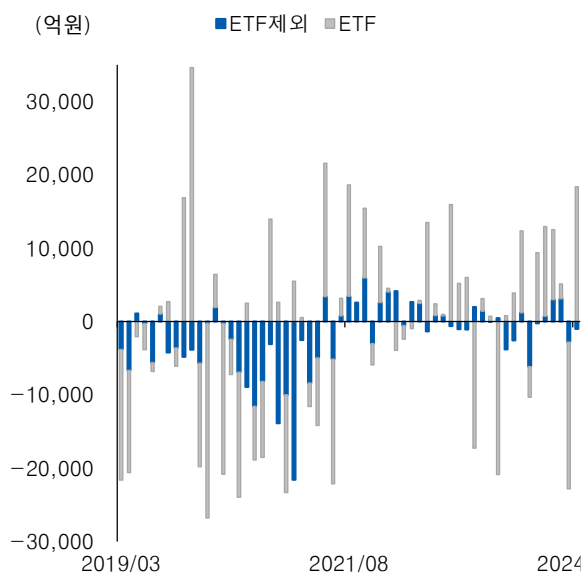
1월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상밖으로 약세를 이어가면서, 주식펀드로는 저가 매수가 크게 늘어났다. 12월 2조원이 넘게 빠졌던 국내주식펀드(ETF포함)는 1월 1.8조원이 들어왔다.

주로 자금이 유입된 펀드는 KOSPI200과 KOSDAQ150 관련 ETF와 레버리지 ETF 등이었다. 테마 펀드 중에서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ETF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고 있다.

해외주식펀드는 S&P500과 다우존스 등의 미국 대표지수와 인도, 일본 관련 펀드로 자금 유입이 이어지면서, 2달 연속 해외주식ETF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 순자산 기준으로 북미주식펀드는 전체 해외주식 펀드 중에서 40%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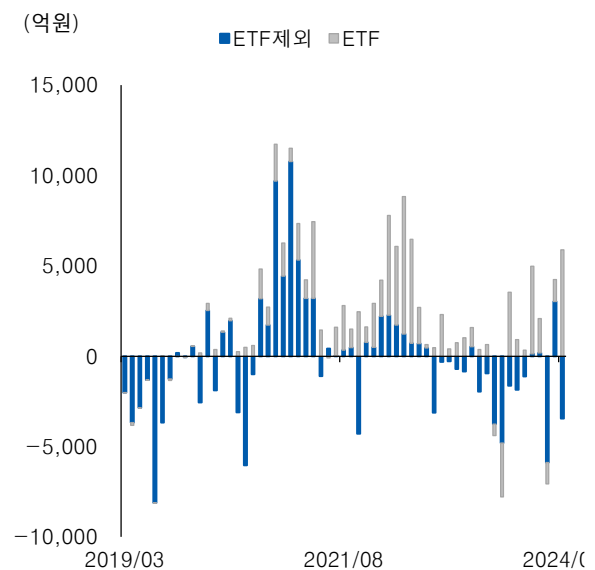
반도체 실적 개선과 금리 인하 기대감 등으로 전반적인 투자심리는 개선되는 상황이다. 2021년 이후 투자 수단으로 ETF를 선호하는 현상은 국내주식과 해외주식에서 공통적으로 점점 강해지고 있다.

[차트1] 국내주식펀드는 1월 순유입 전환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2] 해외주식 ETF는 2달째 순유입



자료: 금융투자협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 미국주식펀드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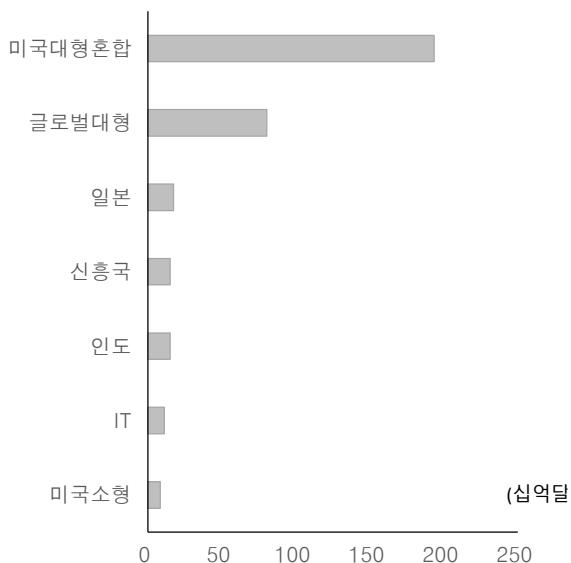
2023년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펀드시장에서 미국주식 선호 현상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오히려 미국 투자자보다 다른 나라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펀드 투자에 더 적극적이었다.

2023년 글로벌펀드시장에서는 M7이 포함된 미국대형혼합 유형으로 1935억달러, 뒤를 이은 글로벌대형 유형은 803억달러가 순유입되었다. 일본·신흥국·인도 등으로도 자금이 들어왔으나, 유입규모는 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이다.

자금 유출이 된 유형은 미국대형가치, 미국대형성장, 미국중형주, 헬스케어 등이었다. 빅테크가 포함된 혼합유형이 선호되다 보니, 그렇지 않은 가치주와 성장주는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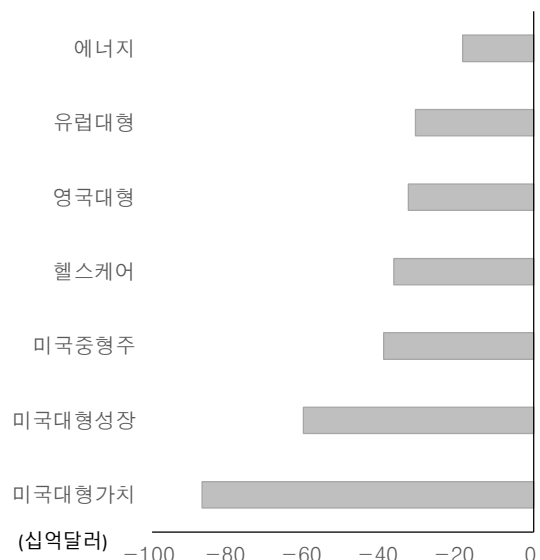
IT 섹터 비중이 낮은 영국과 유럽 등도 자금 유출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성이 기대되는 미국 빅테크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면서, 미국 주식 유형도 자금 유출입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차트3] 글로벌 펀드 시장에서는 2023년 대형혼합이 압도적으로 자금 유입(주식펀드 대상)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4] 글로벌펀드 시장에서는 2023년 가치주와 헬스케어, 에너지 등에서 자금 유출(주식펀드 대상)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3. 중국에서 인도·대만·멕시코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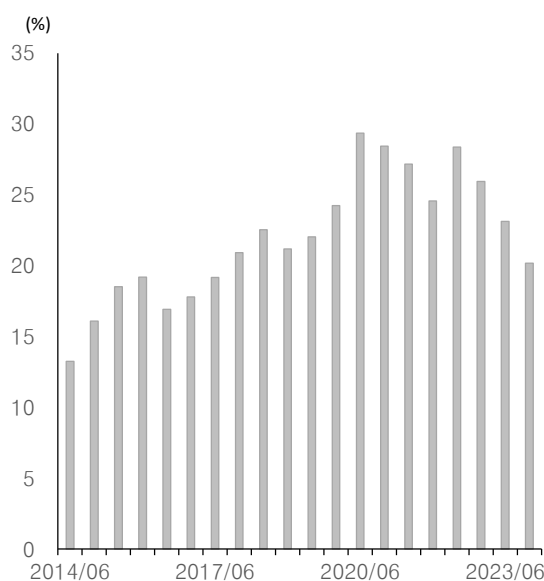
글로벌 금융 시장의 큰 관심사 중의 하나가 중국 증시의 부진이다. 중국 부동산 부실과 부진한 내수 경기, 미중 갈등 등으로 중국 경제가 반등하지 못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중국 투자를 줄이고 있다.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2020년 29%까지 차지했던 중국의 비중은 2023년말 20%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이는 2017년의 투자 비중 수준이다.

반면 인도와 대만, 멕시코 등은 신흥국 주식 펀드 안에서 투자 비중이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인도는 중국의 대체 투자처로 부각되면서 2023년 신흥국 펀드 안에서 투자 비중이 14%까지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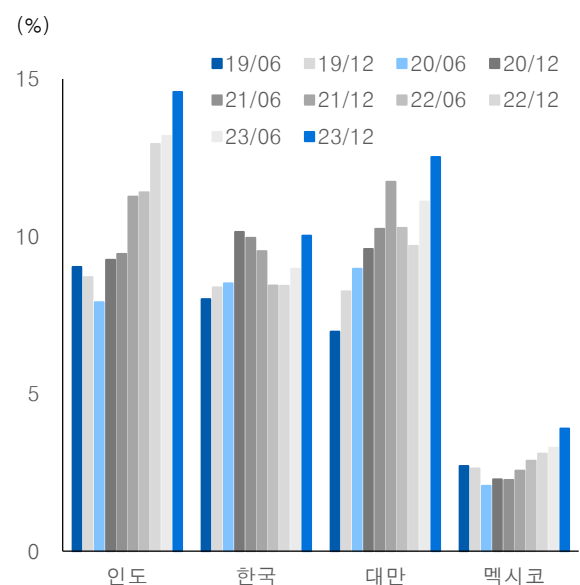
한국은 2023년 하반기에 신흥국 주식펀드 안에서 투자 비중이 늘어나, 2023년말 10%를 기록하였다. 신흥국 경제 환경이 변화하면서, 중국의 자리를 대체하는 신흥국 선호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트5] 신흥국 펀드 안에서 중국 비중은 20%까지 감소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6] 신흥국 펀드 안에서 인도, 대만, 멕시코의 비중은 계속 높아짐



자료: Morningsta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